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 위치는 시내는 아니지만 교통편이 가까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무난했습니다.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고 시설은 매우 좋습니다. 깨끗하고 넓다는 느낌이 들며 여름에는 학교 앞 분수대도 전부 작동되어 더 예쁘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한국인 학생도 드물게 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이 있지만 수업을 같이 안 듣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내용은 교환학생준비반의 수업과 매우 비슷하나 (문화에 대한 내용) 좀 더 지루하고 기초적인 문법 수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열정적이나 수업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과제도 자주 있는데 물론 매우 간단한 과제들이지만 어학연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공부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꿈꾸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거 같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 granville island : 아파서 참석 못 함 - activities with langara students : 랑가라 학생들과 만나서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맛집, 액티비티 추천 등)를 나누고 보드게임 카페를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한 친구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 curling : 컬링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라서 정말 짧고 아쉬웠습니다. 장갑 및 편한 복장 필요합니다. - museum of vancouver : museum of anthropology가 더 볼 것도 많고 저렴하다는 홈스테이 가족들의 추천에 둘 다 가봤는데 확실히 밴쿠버 박물관은 즐길 거리도 적고 심지어 박물관에서 해야하는 과제가 있어서

	구경하기에 시간이 매우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캐필라노 해변이 있어서 활동 이후에 그곳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vancouver aquarium : 한국보다 좀 더 신기한 경험 (펭귄보기, 4D영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주변에 스탠리 파크가 있어서 날씨가 허락하면 이후에 자전거를 타면 좋습니다. - capilano suspension bridge : 흔들다리 같은 곳인데 핸드폰이나 카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하고 cliffwalk도 체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비랑 눈이 많이 왔습니다. 부츠가 꼭 필요하고 챙거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산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짐이 될 거 같아서 현지에서 사거나 홈스테이 가족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빌리곤 했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여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아무래도 한국보다 마약에 취약하고 거리 또한 어두운 편이라서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CCTV가 버스나 백화점 외에는 흔하지 않아서 분실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홈스테이가 매우 만족스러웠는데 방은 조금 좁고 추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정말 필요한 물건도 빌려주시고 먹고 싶은 음식도 사주셨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마다 영어로 이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나누는 등 홈스테이 부모님이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욕조도 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에는 거의 도시락을 싸고 다녔고 한 번 학교 식당 음식을 이용했었습니다. 맛있고 양도 많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쌌습니다(만원대). 외부식당 역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기본 2만원을 생각해야 넉넉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조금 싼 곳은 1만5천원 정도 드는 거 같습니다. 음주를 할 경우에는 여권 사본 말고 꼭 여권 실물이 필요합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비가 비싼 편입니다. 저는 총 20만원 정도 나왔던 거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추가비용 (5달러)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매우 느린 편이라 가끔 걸어가는 시간이라 버스타서 걸리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가면서 길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600000	옷, 기념품, 영양제
음식	350000	음식, 카페, 음료
교통	10000	아쿠아버스, 부과금
문화	60000	미술관, 스케이트, 자전거, 전시회
합계	102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비행기 탈 때 : 멀미약 필수, 비행기 탈 때 렌즈 끼지 않기 밴쿠버에서의 생활 : 튼튼한 우산 하나, 부츠, 장갑 챙길 것 (겨울에는 필수) 현금만 받는 곳도 있으니 현금 최소한 200달러는 챙기기 구글지도, 가계부, 넉넉한 핸드폰 메모리 필수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단기어학연수 지원 당시에는 홈스테이 가족이랑 비디오게임을 하고 요리를 같이 하는 일반적인 가정집을 꿈꾸었다. 가족이 배정되었을 때 다들 나이가 꽤 있어서 활동을 많이 즐길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에 슬펐고 집이 멀리 있는 편이라(학교까지 40분) 속상했다. 처음 가족들을 만나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다운타운에서 산책을 했다. 예상과는 달리 가족들은 액티비티를 좋아했다. 스키를 타고 싶다는 나에게 선뜻 장비를 빌려주겠다고 했고 수영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주말이면 나에게 같이 나갈 거냐고 물어보고 같이 나가게 되면 맛있는 것도 사주었다. 스노우 워킹과 수영을 같이 즐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온 것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폴란드 계열인 우리 가족과 멕시코에서 온 홈스테이 언니 덕분에 폴란드 음식, 캐나다 음식, 한국 음식, 멕시코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매일 저녁 시간에는 다 함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트북으로 각국 여행 영상도 시청하고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도 하였다. 비록 가족들과 비디오게임을 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만든 한국 요리인 잡채와 불고기도 즐길 수 있었다. 나도 밴쿠버에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홈스테이 가족 역시 기회가 되면 한국에 놀러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첫 여행이어서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고 아프기도 했고 힘들었지만, 홈스테이 가족들이 내 두 번째 가족으로서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3주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정말 재미도 없고 도움이 안됐지만 집에서 나눴던 문
--

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많은 차이를 느끼고 배우고 수용할 수 있었다. 랑가라에서 새로 사귄 필리핀 친구 역시 필리핀 음식을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가 몰랐던 밴쿠버를 여행시켜주었다.

학교에서 즐기는 액티비티도 재밌지만 많이 알고 갈수록 더 많이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거 같다. 사전조사를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얼마나 많이 시도하느냐에 배움의 즐거움이 정해지는 것 같다. 너무 딱딱하게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학교에 의지하고 기대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다양한 음식과 체험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영어와 영어회화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향후에 밴쿠버를 다시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방학에는 스페인어를 조금 공부해서 한 달 살기에 도전할 예정이고 내년이 끝나갈 때는 교환학생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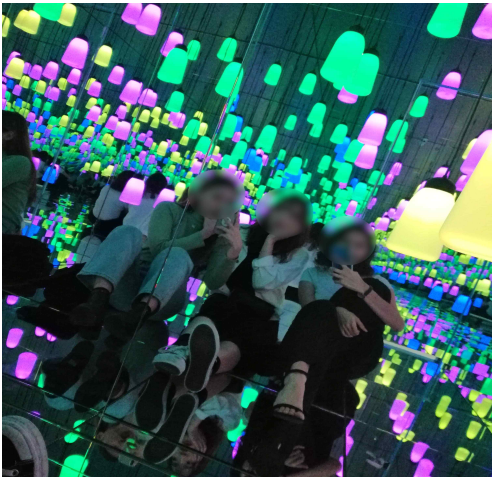
	
홈스테이집	랑가라 학생들과의 활동
	
컬링	밴쿠버 아쿠아리움



스탠리 공원



카필라노 서스펜션 다리



갤러리(전시회- 랑가라 학생과 갔음)



미술관



가스타운



아이스링크